

불자 세상보기



유경길 예코부터 공동대표

이미 극에 치달은 피코오일 (Peak-Oil) 지금의 심각한 고유가의 원인으로...

고유가는 장기적으로 볼 때 피코오일문제 발생한 현상 중에 하나이다. 이미 전 세계 석유생산량은 점점이 이르렀고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사부대중 칼럼



이종만 좋은벗풍경소리 기획실장

봄이다. 학 풀린 날씨에 확연한 봄이 왔음이 느껴지는 요즘이다.

유난히도 추웠던 올겨울의 동정군도 얼마 전 동해안 폭설을 끝으로 기운이 다한 것 같다.

오랜만에 반가운 전화라도 올라치면 그 시절이 그리듯이 봄날의 상상은 간혹 재미있는 꿈을 꾸게도 한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어린이 범죄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시기.

몇주 전 참석한 결혼식에서도 우연히 20여 년 만에 친구를 만났다.

동지역에서 끊임없이 분규와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잔치는 끝났다. 이제 과보를 받을 차례. 돈에 의존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돈이 없으면 심각한 어려움을 느낀다.

고기값이 오르면 대신 야채를 사서 먹으면 되고 물결값이 오르면 안사면 되는 것이다.

안 쓰는 생활방식으로 살면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없는 당신은 아마도 남보다 더욱 많이 석유의 혜택을 누려온 사람이라서 그럴 것이다.

살아남기 - 천천히 사는 소박한 삶을 즐기는 삶

우선 당신이 쓰는 자동차를 안 쓸 방법을 찾아야 한다. 10년 전 당신은 자동차가 없었다고 불행하지 않았다.

社說

지도부 쇄신 보여라

3월 11일 조계사에서 '민족문화 수호 자성과 쇄신 결사 직할교구 결의대회'가 3000여 사부대중의 참여로 성황리에 회향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직할교구 대회사에서 "자성과 쇄신을 통한 바람을 일으켜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자"고 강조했다.

연경사회문화정책연구네트워크 김영국 운영위원은 4일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07년 대선 당시 승려 380여 명이 이명박 캠프에 상임고문 등으로 참여했다."

그가 이 사실을 폭로한 것은 조계종이 대중을 선동해 민족문화수호운동을 벌이면서, 지도부를 중심으로 정치적 불법직업을 진행 중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前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도 5일 봉은사 일요일법회에서 "5대결사가 잘되면 총무원장과 종회의원이 자신들의 흠부터 고백해야 할 것"이라며 "자승 총무원장부터 MB하수인 노릇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야 한국불교가 새로 태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명진 스님과 김영국 운영위원에게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회피하거나 침묵해서는 안된다.

자성과 쇄신 결사는 국민과의 신뢰 회복 이전에 종교 간 신뢰가 전제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전기생(全機生) 전기사(全機死)'. 온전히 살려면 온전히 죽어야 한다.

소탐대실(小貪大失)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끝났다. 종회의원들의 종책질가가 돋보인 종회였다.

이 논란의 단초가 생수 사업이다. 종회의원 주경 스님 등은 종책질가에서 이 점을 잘 지적해 줬다.

이 가운데, 조계종 수익사업에 관한 질의에서 재무부는 "전국에, 그것도 약수가 나오는 산중에 물장사를 하러 다니냐"는 질책을 받았다.

조계종 제33대 집행부의 특징 중 하나는 수익사업의 확장이다. 조계종 출판사의 주식회사 전환, 재향군인회와 진행 중인 상조사업이나 석수&퓨리스로부터 납품 받아 판매중인 생수 사업이 그 예이다.

없는 종단 위상을 '푼돈'과 맞바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논란의 단초가 생수 사업이다. 종회의원 주경 스님 등은 종책질가에서 이 점을 잘 지적해 줬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제33대 집행부 출범부터 줄곧 '자생력'을 강조해 왔었다.

생수를 몇 병 팔고, 상조회원을 몇 명이나 모아야 조계종이 자생할 수 있을까. 아이템 선정, 시장조사, 수요예측부터 다시 해야 한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문 네거리에서 그렇게 보고있던 후배를, 그것도 평소 호형호제하는 형님과 함께 만나 한참을 반가워했으니 역시 인연은 따로 있는 모양이다.

이런 인연의 끈에는 소중한 정겨운 분들이 참 많다. 그중에서도 아직도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그 때 그 시절 알콩달콩했던 시절과의 만남일 것이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조계사 앞마당 아이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불교와 어린이, 찬불가, 어린이 법회와의 인연이 내 마음에 씨앗으로 뿌려진지 제법 많은 시간이 흘렀다.

언제였던가. 굳이 오래전의 시간을 들추어내며 "어휴" 품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때 그 시절의 뜨거운 열정과 아름답고 순수했던 사람들, 그리고 풍경소리의 발심으로 이르기까지의 소중한 인연들이 지금의 '파이웨이'를 부르게 하는 큰 힘이 되었으리라.

1980년대와 1990년대. 어린이 범죄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시기. 절마다 아이들의 "하하 호호"가 넘쳐나는 시기였다.

후 학원 등 생활패턴이 많이 달랐지만 전국적으로 어린이 범죄의 열기가 가득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의 아이들과 범죄 선생님, 지도법사 스님. 이제는 제법 시간이 흘렀지만 간간히 전해지는 소식에 즐거워진다.

그중 가장 많은 소식은 결혼소식과 자녀에 관한 내용이고, 또한 그 다음으로는 "보고 싶다"와 "자리 한번 만들자"라는 아이 러브 범죄에 관한 제안이 제일 많았다.

드디어 이런 열망(?)과 그리움에 선생님과 스님들의 조종한 자리가 만들어졌다. 지난 달 경주에서의 따뜻한 자리가 마음에 불을 댕겼고, 여기저기 알음알음의 인연으로 멋진 자리로 이어진 것이다.

"선생님! 여자선생님 중에 *** 아시죠? 선생님 뵈보고 싶다고 꼭 나오시래요." 나 역시 모임을 주선한 선생님의 예쁜 한마디에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은 당연했다.

로, 정경고 그리운 친구들이 오랜만에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한 행복한 나들이를 하였다.

이어지는 정담과 웃음소리. "그 댕 그랬지"에서 "지금은..."까지 정말 아이 러브 스쿨이 아닌 아이 러브 범죄였다.

헤어지기 아쉬워 몇 번이고 악수와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잠으로 혼 혼해져 온다. 걸음걸음마다 다시 한 번 나의 타임머신이 영화 상영을 하는 듯하다.

입춘대길. 가슴에 딱하니 새기고 씩씩하게 걷는 3월의 오늘밤. 오늘은 참 좋은 날이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혜월, 인쇄인: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수행템플스테이 (깨달은 다이어트). 진짜실. 어러의 번뇌를 쉬고 입을 쉬고 내장을 쉬는 지혜로운 템플스테이. 절, 염불, 독경, 참선, 와선, 행선, 부처님오공법, 알아차림을 완벽하게 배우고 점괘를 받으며 실천수행.

統合佛敎儀式大典 出刊. 총 1,2권 2,100 페이지. 가격: 전권 200,000원. 크기: 4x6배판 (19x26cm). 본문법회식대전 / 총 1권: 100,000원.

염불당과 열반지 권선문. 불초한 소송의 발우를 들고 원력을 세워 땅 한평 시주 권선을 펴는 바입니다. 경지와 기도터 아주 수려한 곳, 조그마한 토굴산방에서 혼자서 수행정진 하기가 너무나도 아까운 기도도량 터기에 스님들과 불자들의 염불당과 열반당을 건립하고자 전국에 계신 모든 불자님 원력으로 심히 동참 하심을 권선문을 펴는 바입니다.

"운동요법"의 대체의학으로 건강을 지키자. 제6기 소림무승, 의승, 지도자 교육. - 문화 체육부 법인이자 자격증 수료 - 한국소림무승협회에서는 중국 숭산 소림사와 같이 국내 최초로 무승과 의승 지도자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